

“두려웠지만 이겨냈다” 투혼의 네일



지난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나온 KIA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등판을 마무리한 뒤 관중석을 보면서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국시리즈 1차전 5이닝 4피안타 2볼넷 6탈삼진 1실점 호투
“팀이 원하는 대로 따를 것... 어떤 역할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



두려움을 이겨낸 제임스네일이 투혼의 피칭으로 '가을 잔치'를 빛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을 통해 'V12'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비 때문에 뒤늦게 시작된 이날 경기에서 두 팀은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삼성의 공격이 전개되던 6회초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됐고, 결국 한국시리즈는 물론 포스트시즌 역사상 첫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다.

'가을비'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어수선한 잔칫날이 됐지만 네일의 피칭은 한국시리즈를 빛낸 장면이 됐다.

네일은 지난 8월 24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타구에 얼굴을 맞아 턱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한국시리즈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일은 재활에 혼신을 다했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면서 결국 마운드로 돌아왔다. 한국시리즈 1차전이라는 큰 무대를 부상 복귀전으로 삼은 네일은 5이닝 4피안타(1피홈런) 2볼넷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다.

1회 시작과 함께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고, 1루수 포구 실책도 나왔지만 무실점으로 1회를 막은 네일은 3회 실점 위기에서는 직접 공을 잡아 3루 주자를 태그 아웃 시켰다. 주자와 충돌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했지만 네일은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 다시 마운드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삼성 원태인과의 팽팽한 투수전 끝 6회 선두타자 김현근에게 홈런은 맞기는 했지만 네일은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자신의 부상 복귀전이자 첫 한국시리즈 등판을 마무리했다.

거침없이 공을 던지고, 적극적으로 수비에도 가담했지만 '두려움'은 있었다. 네일은 지난 9일 상무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부상 이후 첫 실전을 소화했다.

이날 KIA는 마운드 앞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상무의 양해를 구하고 그물망을 설치했다. 네일은 1회 피칭이 끝난 뒤에는 그물망을 치우고 보호 장치 없이 타자들을 마주했다.

22일 네일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했다. (상무전에서) 1이닝을 소화하고 난 뒤에는 그물망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물망 없이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다"며 "어제 던질 때도 '이 타이밍에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이고, 그때 타자가 스윙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두렵기는 했다. 하지만 두려움을 억누르고 하던 대로 하면서 이겨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팀의 우승을 위해 투혼을 선보인 네일, 그에게도 한국시리즈는 의미 있는 무대다.

네일은 "한국시리즈를 뛰게 돼서 정말 특별했고 즐거웠다. 부상 당한 이후 지난 7주 동안 다시 마운드에 오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며 "올 시즌 150이닝가량을 던졌는데 재충전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좋은 스윙퍼를 던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자신의 피칭을 이야기했다.

김현근에게 내준 홈런은 어쩔 수 없는 경기의 일부다.

네일은 "6회까지 0-0의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비가 오면서 마운드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 원태인과 좋은 피칭으로 0-0으로 가고 있었다. 6회초 몸상태가 좋기는 했다. 김현근에게 던진 공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괜찮은 스윙퍼를 던졌는데 맞았다. 어쩔 수 없다"며 "올 시즌에도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경기 후반에 뒤집는 경기가 많았다. 삼성과도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우리 공격력과 불펜들을 믿는다. 잘 해줄 것이다. 이닝 잘 마무리해 줄 것이다. 여전히 좋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건강하게 마운드로 돌아온 네일은 팀의 우승을 위해 투혼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네일은 "시리즈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겠지만 팀이 원하는 대로 따르려고 한다. 부담감도 더 많고 스트레스도 더 심하기 때문에 한국시리즈에서 던지는 75구는 시즌 중에 던지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오늘 일어났을 때 몸상태, 어깨 상태 모두 좋았다"며 "팀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V12’ 승리대로 과감하게

KIA '안방마님' 김태군의 우승 전략
“1차전 무사1·2루 상황 승부
줄 것 주고 분위기 가져와야”

“점수 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려고요.”

KIA 타이거즈의 '안방마님' 김태군의 우승 전략은 승리대로 과감하게 가는 것이다.

KIA는 23일 'V12'를 위한 중요한 날을 보낸다. 21일 진행된 한국시리즈 1차전이 비로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서스펜디드가 선언됐고 22일에도 비가 계속되면서 순연 경기기도 또 순연됐다.

결국 KIA는 23일 오후 4시부터 0-1로 뒤진 6회초 무사 1·2루에서 1차전 경기를 재개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2차전 경기를 치른다.

한국시리즈 역사에 없던 승부가 펼쳐지면서 23일은 전체적인 시리즈 흐름을 바꿀 중요한 날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영웅과의 승부가 중요하다. 두 명의 주자를 두고 원 불에서 전개될 승부, 김태군은 "점수 주겠다"는 생각이다.

김태군은 "물론 어떻게 투수진을 운영하실 건지 감독님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런데 냉정하게 1루 주자까지 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앞으로 남은 경기에도 중요할 것 같다"며 "준플레이오프도 그렇고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안 주려고 하

다 상황이 더 힘들게 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할 때도 감독님, 코치님들하고 줄 것 주고 가져고 이야기했다. 점수를 준다고 해도 그 점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물론 그렇게 경기가 끝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큰 것 맞아서 분위기 주는 것보다, 줄 것 주고 다시 우리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빛속의 승부가 전개됐고 처음 한국시리즈를 맞은 후배들의 긴장감도 엿볼 수 있는 1차전이었지만 김태군은 즐겁게 '가을 무대'를 열었다.

김태군은 "한국시리즈보다는 중요한 시리즈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후배들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데 긴장한 모습이였다. (박)찬호 많이 하고, (최)원준이도 그렇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았다. 나는 재미있었다"고 웃었다.

공-수에서 잘 풀리면서 2016시즌 이후 김태군의 두 번째 한국시리즈가 순조롭게 막을 열었다.

일단 1차전 승부는 물론 전체적인 시리즈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 네일의 부상 복귀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김태군은 "가장 좋은 것을 쓰려고 했다. 제일 잘 던질 수 있는 구질을 선택했다. 1회에는 단지 컨트롤이 안 됐을 뿐이고 이후 잘 됐다. 시리즈 때는 (구중을) 퍼센트를 나누고, 분산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 써야 한다"

며 "우려대로 (볼넷으로) 시작은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가 좋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다. 과정보다 중요하지만 시리즈는 말 그대로 결과가 중요하다.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는 타석에서 기분 좋은 안타도 만들었다. 원태인을 상대한 KIA는 이날 5회까지 단 2개의 안타만 뽑아냈다.

김태군은 "다른 선수들도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나는 최대한 하던 대로 하려고 했다. 일부러 몸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운동도 조금 더 힘들게 했고, 운동 끝나고 나서 잠자는 패턴도 조금 더 힘들게 해서 더 많이 잘 수 있게 했다"며 "조언들은 것도 있고, 경기 앞뒀을 때 몸 컨디션 관리하는 것은 이를 전에만 하면 된다. 시즌 때처럼 피곤하게 하는 게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가 안타를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과감해야 할 것 같다. 양의지리는 선수랑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조언도 들었다. 아무것도 모를 때 한국시리즈를 해봤고 그 뒤에는 못 해봤지만 양의지 선수하는 것을 많이 보고 배웠다"며 "여유 있는 척하는 것과 진짜 여유 있는 것은 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다르다.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랑 지금은 다르다"고 과감한 플레이를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타니와 저지... 한 명만 웃는다

26일 월드시리즈 개막...다저스-양키스 43년만에 격돌

'꿈의 무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가 올해는 두 명의 슈퍼스타 덕에 더 빛난다.

MLB 최고 명문 팀 뉴욕 양키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26일부터 7전 4승제의 월드시리즈를 치른다.

두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 건 1981년 이후 무려 43년 만이다.

다저스와 양키스의 격돌만으로도 뜨거운 이번 월드시리즈는 오타니 쇼헤이(다저스)와 에런 저지(양키스)의 생애 첫 월드시리즈 대결로 더 빛나오를 전망이다.

저지는 올해 타율 0.322, 58홈런, 144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159를 기록했다.

AL 홈런과 타점, OPS는 1위고, 타율은 3위다. 오타니는 타율 0.310, 54홈런, 59도루, 130타점, OPS 1.036을 올렸다.

MLB 최초로 50홈런-50도루를 달성한 오타니

는 NL 홈런, 타점, OPS 1위의 영예도 누렸다. 타율과 도루는 2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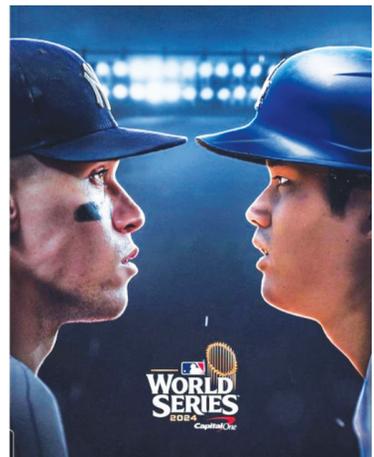
양대 리그 홈런 1위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 건 67년 만이다.

AP통신은 "오타니와 저지 이전에 양대 리그 홈런왕이 월드시리즈에 격돌한 사례는 5번뿐이었다"며 "1921년 베이브 루스와 조지 켈리, 1928년 로스와 짐 보텀리, 1936년 루 게릭과 벨 오트, 1937년 조 디마지오와 오트, 1956년 미키 맨틀과 듀크 스나이더가 정규시즌에서 홈런 1위에 오른 뒤에 월드시리즈에서 경쟁했다"고 밝혔다.

에런 분 양키스 감독은 "많은 팬이 올해 월드시리즈를 지켜본다"며 "엄청난 스타들이 출전하니 분명히 훌륭한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타니는 2018년 빅리그에 입성해 투타 겸업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저지는 2016년 MLB에 데뷔해 '약물에 오염되



<MLB 공식 SNS 갈무리>

지 않은 청정 홈런왕'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오타니가 2018~2023년에는 AL 소속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 뛰며, 둘은 AL MVP를 놓고 경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